願往生 원왕생… 찬불가에 법당은 울음바다

김해 여여정사 '제1회 백중음악제'

'어머니 보고파서 그 자리에 다시 서니 구름은 흘러와서 내 몸만 태워가네, 이제는 한 송이 꽃이 되신 내 어머니, 이제는 보지 못할 아주 가신 내 어머니'

백중 49일 영가천도기도 중인 경남 김해의 어느 법당에 찬불가 '어머니'가 울려 퍼지자, 기도를 집전하던 주지 스님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200여 기도 동참자가 모인 법당 안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했다.

염불이 아닌 찬불가 합창으로 유주무주 고혼에게 음성공양을 올려 백중 기도를 대신하는 이색법석이 한국에서 최초로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에서 열렸다.

경남 김해시 삼계동 여여정사(주지 도명)는 백중 영가천도 49재 중 3재인 7월 18일 경내 대법당에서 '제1회 백중음악제'를 봉행했다.

음력 7월 보름을 일컫는 백중은 속가에서는 추석의 한 달 전을 지칭하지만, 불가에서는 하안거의 회향일로 부처님오신날 다음으로 큰 명절이다. 이 기간 사찰에서는 백중 49일간 일곱 번의 재를 지내며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이때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기도에 임하고 있어 이번 음악제는 더욱 특별하다.

오전 10시 백중기도에 동참한 200여 명의 신도들은 〈금강경〉을 소리 내 읽는 독경 천도와 지장보살 정근을 통한 염불 천도, 〈신묘장구대다리니〉 주문을 외우는 주력 천도기도 등 다른 사찰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기도에 동참했다. 이윽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휴식시간 없이 곧바로 '백중음악제'가 이어졌다.

주지 도명 스님은 특별히 1부 순서가 끝날 때까지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총 2부로 나눠진 음악제 중 1부는 망자를 위한 순서인 만큼 백중 3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찬불가 속 가사를 음미하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마음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백중 7재 중 음악으로 제를 지내는 것은 여여정사 찬불가교실을 지도하는 정성민 교수(동의대 음악학과, 청공중창단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정 교수는 백중기도 기간 중에는 사찰에서 문화행사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해,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기도에 동참한 이들에게 환희심을 북돋아 줄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의 지휘 아래 여여정사합창단과 청공여성중창단은 합창을 통해 유주무주 고혼과 기도에 동참한 200여 사부대중에게 음성공양을 올렸다.

1부 영가를 위한 음악제에서는 '제불보살님' '유주무주 조상연가' '얼굴' '향을 사르러 몸을 태워 구름 걷힌 달처럼' '어머니' 등이 차례로 노래됐다. 특히 찬불가 '어머니'와 '향을 사르러 몸을 태워 구름 걷힌 달처럼' 등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곡들은 불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심어줬다.

김필화(법명 여진혜, 51) 씨는 '어머니'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김 씨는 "매년 백중기도에 동참하는데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재는 처음"이라며 "한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와 나의 마음이 동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예승(藝僧) 조월 스님의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직접 제작한 36현 개량가야금과 피리로, 영가의 넋을 달래는 즉흥곡을 연주해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조월 스님은 20여 년간 양산 영축산 자락의 토굴에서 칩거하며 음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불 아닌 찬불가 부르며
지극한 마음으로 음성공양
영가천도와 복전 쌓는 일
기도 동참자 모두 한마음

조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뿐 아니라 여러 찬불가에도 담겨있는데, 오늘 사부대중이 다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음성공양 속 법문을 유무무주고혼이 새겨듣고 감화했을 것"이라며 "백중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오늘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노래하면 크나큰 복전을 쌓는 일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1부 순서가 망자를 위한 음악제였다면 이어진 2부는 살아있는 이들, 즉 기도에 동참한 이들의 앞날을 축원하는 생전예수음악제였다.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한 2부 순서에는 '동백섬', '박연폭포',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 '당신의 미소' '사랑이여' 등 익숙한 대중가요 합창이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곡인 '사랑이여'에서는 모든 기도동참자가 일어서서 합창하는 것으로 백중음악제의 대미를 장식됐다.

처음 백중기도에 동참한 최은영(법명 반야자 · 25) 씨는 "초발심자라서 기도 중에 외우는 독경이나 주력, 염불 등을 따라 하기 어려웠다"며 "음악제에서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음성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대신할 수 있으니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음악제가 끝난 후 사부대중이 함께 장엄염불을 독송하고, 영가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는 것으로 백중 3재를 회향했다. 200여 대중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정과 직장에서 백중음악제의 선근공덕을 나누는 것으로 백중 3재 기도를 다시 회향했다.

박지원 기자

청공여성중창단과 찬불가 교실 학생들이 합창을 하고 있다.

기도 동참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백중영가천도기도 음악회로는 전국 최초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찬불가의 가사는 부처님 법음으로 이뤄져있고, 경전을 영가님에게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음성공양으로 법음을 들려드린다면, 경전독송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공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음악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백중영가천도기도 동안 음악회의 형태를 빌어 제를 지낸 것은 김해 여여정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다. 염불을 비롯해 절, 참선, 사경 등 수행은 정적이고 진지한 것이라는 편견을 탈피해, 음악이라는 감성적 요소에서 수행의 목적인 심연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도명 스님은 "사실 백중은 영가들을 위한 정화와 해탈이 공존하는 축제로, 절대 무겁거나 어둡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1부에서 망자를 위한 진혼곡을 노래했다면, 2부는 생자를 위한 해탈음악회로 진지하면서도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이번 음악제는 기도에 동참한 많은 신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감성코드를 접목한 문화제전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스님은 "찬불가 이외에도 선서화, 아로마테라피 등 육근육식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과 만날 수 있는 수행의 방편은 많다"며 "앞으로 미래불교는 봉사와 자성, 문화를 통한 포교에 역점을 두고 불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교가 절실한 만큼 내년에는 생자를 위한 2부 순서에 집중해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추가 개설 안내

● 일 시 : 10월 12일(수) ~ 16일(일)
(음력 9월 16일 ~ 20일), 4박 5일

● 장 소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 소재)

● 강좌 세부 내용
신임주지의 역할과 책무, 포교전략과 활성화 방안, 사찰 총무재무회계, 사찰부동산등기의 실제, 불교관련국가법령의 이해, 설법능력향상과정, 현대적 사찰불사 어떻게 할 것인가? 사찰세무, 국고보조금 절차와 방법, 사찰 자원봉사활동 등

● 접수방법
①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우측 '연수교육' 배너로 접속하여 신청
②교육원 연수국 02)2011-1807~9

불기 2555년 연수교육 안내

불기 2555(2011)년 연수교육이 7월 **현재 2천여 명의 스님들의 접수와 참여**로 원만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첫 시행된 상설 연수교육이 이제 많은 스님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점차로 자리잡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스님들께서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말사 주지스님들께서는 개설된 강좌 중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각종 강좌와 자원봉사활동을 연수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오니, 스님들께서는 원하는 강좌와 자원봉사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 음 -

▮교육대상 _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2011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③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및시간 _ ① 일반연수과정 2박3일 12시간 이상(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4박5일)
② 자원봉사활동 총 18시간 이상

▮교육장소 _ ①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마곡사 인근)
② 각 자원봉사활동 기관 (별도 주소록 참고)

▮접 수 _ ①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접수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 빠른 접수를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 초기화면 우측 배너(연수교육 신청) 클릭 ⇒ 연수교육 홈페이지에서 접수)
② 교육원으로 직접 전화(02-2011-1807~9)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 육 비 _ ①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② 승납 10년 미만으로 주지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들께 모든 연수교육과정 교육비중 5만원을 감액합니다.
③ 교육과정을 2개 이상 신청하시는 스님들께는 2회차부터 교육비를 5만원 감액합니다.
④ 승납 10년 미만이면서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스님들은 10만원을 감액합니다.
⑤ 자원봉사활동은 교육비가 없습니다.

▮교육비납부방법 _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입금 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납부시 반드시 속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찰명으로 납부시에는 전화를 별도로 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의 처 _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02-2011-1807~9 / 팩스) 02-732-4926

불기2555(2011)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